

북스

가슴에 와닿는 동서고금의 명문장

어린이 책꽂이



▲라이온 킹과 세렝게티 친구들=자연다큐멘터리 '라이온 킹'을 제작한 최상규 감독의 치열한 고민과 열정이 담긴 책이다. 2001년 넘게 밀착취재한 세렝게티를 200여 컷의 사진을 통해 생생하게 세렝게티를 만나볼 수 있다.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세렝게티의 제왕이 될 어린 사자의 이야기 등을 담았다. (웅진주니어·1만원)



▲거짓말 학교=제10회 문학동네어린이문학상 대상 받은 전성희씨의 작품이다. 청소년 모델추리극 성격의 짜릿한 내용은 사투 현실풍자적이다. 입학식 30명 가운데 10명이 학교를 떠나야 하는 거짓말 학교의 시스템은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는, 거짓으로 얼룩진 사회를 꼬집었다. (문학동네·9천800원)



▲뱀드비치 할머니와 슈퍼 뱀뱀=치매에 걸린 할머니와 가족들의 이야기이다. 스웨덴 기자출신 작가 페루체가 자신의 외할머니인 에밀리아를 수년간 간호하면서 경험한 일을 토대로 썼다. '치매'라는 병에 걸린 할머니는 오른쪽 인격을 헛갈려하고, 샌드위치를 '뱀드비치'라고 하며 몇십 년 전 일은 생생히 기억한다. (외이아이·9천원)



▲지각쟁이 티들러=꼬맹이 마음 시리즈 37번째 책. 티들러는 깊은 바다 속에 사는 작은 물고기다. 티들러는 매일매일 공상에 빠져 있다가 학교에 지각하기 일쑤다. 선생님이 지각한 이유를 물을 때마다 티들러는 언어공부를 만났다는 등, 대왕 오징어에게 잡혔다 간신히 살아났다는 등, 각종 핑계를 댄다. (어린이작가정신·9천500원)



▲아빠의 고래=울산에서 활동하는 동화작가 장세련씨의 단편동화집이다. 국보 285호인 반구대 암각화를 소재로 한 표제작 '아빠의 고래'를 비롯해 '항기나는 편지' '공중전화와 겨울바람' '첫눈이 올 때까지' 등 그동안 발표된 단편동화 14편을 엮었다. 우리 옛것과 잃어버린 정서를 담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가득하다. (연암서가·8천원)



▲배고픈 여우 콘라트=하늘과파란상상의 첫 그림책으로 영화감독 겸 작가인 콘라트인 무타의 작품이다. 배고픔을 잡고 크리아빠가 된 여우 이야기를 개성 넘치는 문체와, 아름답고 사실적인 묘사로 그렸다. 책의 주인공들 이름 콘라트와 로렌츠는 '각인어른'을 발견한 콘라트 로렌츠의 이름이기도 하다. (하늘과파란상상·8천500원)



▲황당하고 신기한 조선시대 뉴스=소년조선일보 현직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조찬호씨가 국보 151호인 조선왕조실록을 바탕으로 어린이들이 궁금할 만한 내용을 이야기로 풀어 썼다. '조선 시대에는 어떻게 공부했을까?' 등 46가지 이야기가 펼쳐진다. (조선Books·1만2천원)

▲아이기토끼의 잼 만들기=아픈 엄마를 도와 잼을 만드는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달콤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끈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준다. 포도 잼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끈기와 배려를 깨닫는 아기 동물들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참고 견디는 법을 깨닫게 된다. 인내 후맛보는 달콤한 행복에 대해 알게한다. (게임북스·9천원)

누군가 울고있다

장석주 지음



"지금 세상 어디선가 누군가 울고 있다/ 세상에서 이유없이 울고 있는 사람들/ 나 때문에 울고 있다"-<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엄숙한 시간' 중에

서)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을까? 시인 장석주씨가 문학작품 속 명문장을 골라 자신의 생각을 덧붙인 '지금 어디선가 누군가 울고 있다'를 썼다. 그는 일본에는 '나는 이런 책을 읽어 왔다'의 저자 다치바나 다카시가 있다면 한국에는 장석주가 있다는 말로 출판계에 회자됐던 다독가이며, 실제 3만여 권의 책을 소장하고 있다. 문장과 인생, 관조, 사랑 등 네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49개의 명문장을 골랐다.

기형도, 김현, 정호승의 알토란 같은 문장부터 알베르 카뮈, 프란츠 카프카, 프리드리히 니체, 도연명, 마쓰오 바소까지 동서고금의 명문장이 망라했다. 그는 프랑스 철학자 가스통 바슐라르를 '내 비평의 스승'이라고 부르면서 "바슐라르에게 문장은 곧 공부였다"고 말한다. 바슐라르는 '불의 시학의 단편들'에서 "내게는 고독에 빠질 권리, 나의 고독, 문상의 고독, 내 몸상들의 고독에 빠질 권리도 있었다"라는 명문을 남겼다. 또 프랑스 기호학자 롤랑 바르트의 '기호의 제국'을 통해 "깨달음은 지식이나 주제를 동요하게 하는 강력한 지진과도 같다. 그것은 말의 텅 빈 상태를 만들어 낸다. 말의 텅 빈 상태에서 나의 글쓰기가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죽음같은 시편에 대한 소개도 빠뜨리지 않았다. 정호승의 시 '수선화에게'를 인용하며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야/ 살아간다는 것은 의



모음을 견디는 일이다"는 구절에 주목했다. 저자는 "사람은 늘 자기 안에서 외로움이라는 체내 시계가 끊이지 않고 똑딱거리는 소리를 듣고 사는 존재"라고 정의했다. 또 시인을 꿈꾸던 저자의 청년 시절에 가장 감동받은 책은 '말의 열기'였다고 소개한다. 불에 탄 것처럼 아팠던 시절, 그는 이 글을 통해 "시인 중에서 가장 못난 시인이 될 것이라 직감이 번개처럼 내 마음의 한가운데를 통과했다"고 들려준다. 이처럼 저자가 명문장을 강조하는 것은 명문장을 읽다 보면 명문장가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창작에 대한 열망으로 모리스 블랑소, 프란츠 카프카의 단편소설을 필사하던 저자의 젊은 시절과 노장 사상에 심취한 계기가 됐던 '도덕경'에 대한 이야기 등도 흥미롭다. 이 밖에 동료 시인인 기형도, 최승자와의 우정과 교감이 담긴 문단의 뒷이야기도 곁들여졌다. (문학의 문학·1만3천원) /오공록기자 kroh@kwangju.co.kr

다운증후군 딸 키운 엄마의 지혜

오늘을 산다 오하라 미쓰요 지음



왕따, 학부 자살 기도, 비행 청소년, 야쿠자 보스와 결혼, 호스피스 생활... 그리고 스물아홉살에 비행 청소년 전문 변호사가 된 그녀. 문자 그대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오하라 미쓰요가 자신의 삶을 담담하게 풀어놓은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야'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녀가 9년이 흐른 2009년 자신의 인생 2막을 담은 '오늘을 산다'를 펴냈다.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 발간 이후 그녀의 삶은 또 한번 변화를 겪었다. 오사카 시의 여성 최초 부사장이 됐고, 변호사로 일하는 한 남자와 결혼을 했고, 다운증후군을 가진 딸 하루카를 낳았다. 책은 다운증후군인 하루카를 키우며 얻게 된 삶의 지혜를 담담히 들려주고, 왕따를 당했던 자신의 경험담을 전하며 흑역사 과함을 탈피 해 풀어놓는 이들에게 조언을 건네준다. '서두르지 않고 여유로운 인생길을 걷게 해준 것은 하루카가 우리 부부에겐 준 커다란 선물'이라고 말하는 저자는 어떤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개척해나가는 자신만의 인생법을 이야기한다. (북하우스·1만2천원) /김미성기자 mekim@kwangju.co.kr

'절구통 수좌' 법전 스님 자서전

누구 없는가 법전 지음



선방에 한 번 앉으면 불박이처럼 움직이지 않아 '절구통 수좌'라고 불리며 깨달음이 일생을 바친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 자서전 '누구 없는가'가 나왔다. 조계종 종정이나 고승 가운데 생전 자서전을 출간하는 일은 흔치 않은 일이다. 책제목은 스승인 고(故) 성철 스님이 생전 하던 말에서 따왔다. 스님은 당신이 20대였을 때 성철 노장이 경책을 휘두르면서 "누구 없냐"고 물어도면 꿀 먹은 벼어리처럼 앉아만 있었다고 회고한다. 또 스승에게 인가(印可·깨달음을 인정받는 것)를 받던 일화도 소개했다. 이외에도 출가와 수행, 스승과 도반에 대한 수행자 모습과 생각을 담담한 필자로 썼다. 이번 자서전은 불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읽을 수 있도록 쉽고 간결한 단어로 풀어냈다. 7년을 준비했으며 집필에만 2년이 걸렸다고 전해진다. 한편, 법전 스님은 1925년 함평 출생으로 1938년 백악사 청류암으로 입산했으며 1949년 성철·정담과 함께 봉암사 결사에 동참해 출가했다. 1996년 가야산 해인총림 부주, 2000년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을 역임했으며, 2002년, 2007년 종정으로 추대되었다. 현재는 해인사 퇴실당에 머물며 후학을 수행을 지도하고 있다. (김영사·1만4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50일간 백두대간 종주가 남긴 것

백두대간 하늘길에 서다 최창남 지음



동화집 '개똥이 이야기' 저자이자 다큐멘터리 제작자 참나무숲 대표이기도 한 최창남(53)씨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50일간 백두대간을 종주하면서 보고 듣고 생각한 것들을 기록한 '백두대간 하늘길에 서다'를 펴냈다. 책은 지리산 천왕봉을 시작으로 덕유산, 천화산, 조령산, 황장산, 선달산, 태백산, 오대산, 설악산에 이르기까지 백두대간의 남쪽 산과 고개를 구석구석 누빈 기록이다. 한때에도 여전히 큰 생명력과 포용력을 자랑하 내뿜는 백두대간은 가슴 벅찬 감동을 안긴다. 저자는 높은 봉우리뿐 아니라 낮은 계로 이어지는 백두대간으로부터 자연의 질서와 조화를 배우고, 서로 다른 모습을 지닌 생명 여는 하나라도 소홀히 대하지 않는 눈의 모습에서 생명의 존엄의 의미를 깨닫는다. 저자는 산의 생명력을 과하게도 흠여버린 도로와 발전소, 스키장, 군 훈련장, 송전탑, 댐을 보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백두대간'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때나 그렇지 못한 때나 백두대간은 늘 이 땅을 지키고 서 있었음을 되새기며 "무너진 것은 백두대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글뿐 아니라 조용하지만 기품과 힘이 넘치는 산과 숲, 나무, 길,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작가 이호상(30)씨의 사진들도 많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에이블북스·3만9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Table with financial data, including company names like (주)국민법률경매, and various financial metrics such as assets, liabilities, and equity.